



우리의 家章

青松沈氏宗報

發行人：沈明求
編輯人：沈載烈(輔)
서울市 中區 五壯洞 14-10
電話：(02)2267-7857
(02)2263-7897
FAX：(02)2269-7755

非賣品 1996. 1. 3 등록번호 서울라 - 549호

홈페이지 | www.cheongsongsim.or.kr

十一世祖 贈吏曹判書 行果川縣監 諱：錦 墓碣銘



▶ 과천공묘소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선영하



▶ 신묘표



<없음>

타인을 능멸하려 하지 말라
자연히 오묘(奧妙)의 극치로 귀착되어
마음은 봄철의 가지가 되는구나

<잡영시(雜咏詩)>는 다음과 같다.
四월이라산촌(山村)을 지나는사람적은데
울창한나무속 피꼬리는 절로 울고 있네

또
구름이 피어오르니 돌길이 보일 듯 말 듯
활짝 핀 꽃은 봄옷을 환히 비취네

또
뜨락에 세운 방민(方民)의 담
풀이 무성한 채옹(蔡翁)의 비석

또
천리(千里) 땅을 구석구석 보고 나니
이내 몸 구중천(九重天)에 있는 듯 황홀하여라

공의 한 마디 말은 마치 하늘이 보배로운 구슬을 내리는 듯 하다. 이에 공의 말씀을 잘 살펴 여러 한시(漢詩)를 징험(徵驗)해 보니, 공께서 터득한 바를 알 수 있다. 이미 터득한 바가 이와 같은 합당함을 얻었거늘, 하늘이 수명을 인색하게 주셔서 이미 크게 쓰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찌 후손을 비취주는 이치가 없겠는가! 그 자손이 성대하게 된 것이 과연 까닭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믿게 된다.

공의 휘(諱)는 금(錦)이요, 字는 미중(美仲)이다. 沈氏의 관향(貫鄉)은 靑松으로, 高祖의 휘는 선(璿)인데 단종조(端宗朝)에 벼슬하여 경기도관찰사가 되었고 世祖

우리 선조이신 증(贈) 판서(判書) 감찰공(監察公)께서는 35년을 살다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일곱, 손자가 스물, 손녀 일곱 명을 두셨다. 우리 家門이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지는 것은 모두 감찰공 덕택이다. 대저 공의 수명은 안자(顔子)보다 고작 3년 많으나, 그 자손의 성대함은 안씨(顔氏)의 후손과 거의 같으니, 어찌 말미암은 바가 없겠는가? 유독 한스러운 것은 세대가 너무 멀어 상세하게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따금 宗親 長老에게 대대로 전해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으니, 공께서는 풍채(風采)가 건장(健壯)하시고 덕기(德器)가 맑으셨으며, 이른 나이에 문화(文華)에 성취를 보이셔서 중씨(仲氏) 일재공(逸齋公)과 함께 막상막하이셨다고 한다. 그리고 학문에 힘써 퇴계(退溪) 이황(李滉)과 일재(一齋) 이항(李恒)에게 명성이 전해지셨고, 兵家의 학술에 두루 통달하셨으며, 근력(筋力)이

좋아 활 쏘는 솜씨가 뛰어나다고 소문이 자자하였다. 조정(朝廷)에서는 그가 문무를 겸비했기 때문에 장차 크게 쓰려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한다.

그 후에 다시 청송세고『靑松世稿』를 보니, 공께서 지으신 약간 편의 詩가 있는데, 그 시상(詩想)과 수식(修飾)이 표현(飄然)히 세속을 벗어난 모습이 있었다.

그분께서 지으신 원통사시(圓通寺詩)
석천(石泉)의 요란한 물소리 나그네 잠을 깨우고
소나무에 걸린 달은 스님의 옷깃을 서늘히 만드네
내일 아침의 이별을 남몰래 슬퍼하는데
도리어 세속(世俗)의 일이 날 괴롭히는구나

<묵상인에게 나뭇가지를 주다(贈墨上人枝)>는 다음과 같다.

도(道)를 닦음에는 요법(要法)이 있으니

2006년 秋季時享日表

世	諱(이름)	陽曆	음력	曜日	所在地
始祖	文林郎公(휘: 洪孚)	10.30	9. 9	月	靑松郡 청송읍 덕리 보광산
	중대산소	10.30	9. 9	月	靑松邑 부곡리 중대산
二	閣門祗候公(휘: 淵)	11. 1	9.11	水	益山市 함열읍 남당리 남당산
二	奉翊大夫公(휘: 晟)	11.15	9.25	水	鐵原郡 동송읍 양지리(설단)
三	靑華府院君(휘: 龍)	11. 3	9.13	金	安城市 당왕동 산소
三	淸化부원군配位金氏	11. 3	9.13	金	安城市 도기동 산소
三	판서공(휘: 漣)	11.15	9.25	水	鐵原郡 동송읍 양지리(설단)
三	상호군공(휘: 卿)	11.15	9.25	水	鐵原郡 동송읍 양지리(설단)
四	靑城伯(휘: 德符)	11. 5	9.15	日	漣川郡 미산면 아미리 산소
四	淸성백配位淸州宋氏	11. 7	9.17	火	淸州市 흥덕구 분평동 산소
五	도총제공(휘: 仁鳳)	11. 7	9.17	火	淸州市 흥덕구 분평동 산소
五	판서공(휘: 義龜)	12. 5	10.15	火	全南 보성군 북내면 장천리
五	지성주사공(휘: 繼年)	12. 5	10.15	火	光州市 광산구 송치동 용진산
五	지성주사공配位崔氏	12. 6	10.16	水	全南 장성군 황용면 외곡리

世	諱(이름)	陽曆	음력	曜日	所在地
五	仁壽府尹公(휘: 澄)	11. 7	9.17	火	全北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
五	安孝公(휘: 溫)	10. 6	8.15	秋夕	水原 영통구 이의동 산의실
五	三韓國大夫人順興安	11.14	9.14	土	安城市 금광면 오흥리 능말
五	淸 원 군(휘: 淙)	11.28	10.8	火	坡州市 문산읍 사목리
五	현령공(휘: 天柱)	11.19	9月末週	日	安東市 풍천면 인금리
五	돈제공(휘: 天湜)	12. 3	10.12	日	慶南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六	평산부사공(휘: 灑)	11.22	10.2	水	原州 단계동 사천마을(설단)
六	좌랑공(휘: 溝)	12. 5	10.15	火	全南 보성군 북내면 장천리
六	애암공(휘: 涓)	12. 7	10.17	木	光州市 광산구 감적동가정산
六	良惠公(휘: 石雋)	11.10	9.20	金	龍仁市 포곡면 가실리
六	領中樞公(휘: 濬)	11.21	10.1	火	水原시영통구 이의동 산의실
六	靖夷公(휘: 決)	11.26	10월첫	日	京畿 용인시 양성면
六	증참판공(휘: 孝鼎)	11.25	10.5	土	靑松郡 과천면 용덕리(설단)
六	연일공(휘: 自鼎)	12. 3	10월둘	日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
六	태천공(휘: 關石)	11.21	10.1	火	鐵原郡 금남면 풍암리(설단)

恭肅公養父(康主簿公時享) 陽曆 11월11일(土).
매년 음력 9월21일 구미시 고아읍 예강1리 묘소.

元年에 벼슬을 버리셨다. 호(號)는 망세정(忘世亭)이다. 증조의 휘는 안인(安仁)으로 절도사(節度使)를 역임하셨다. 조부의 휘는 빈(濱)으로 正郎이셨고, 부친의 휘는 광언(光彦)으로 판서를 지내셨고 호는 둔암(鈍菴)이다.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의 門下에서 배우셨는데, 기묘사화(己卯士禍) 때 名節을 세우셨다.

모친은 한양조씨(漢陽趙氏)로 참의(參議) 방정(邦楨)의 따님이시다.

공은 가정(嘉靖) 신묘년 2월 12일에 태어나셔서, 25세 때인 乙卯年에 상상(上庠)에 오르셨다. 관직은 내직으로는 佐郎과 監察을 역임하셨고, 外職으로 果川縣監에 제수 되셨다.

그리고 을축년 12월17일에 官舍에서 돌아가셨다. 이 조판서에 추증(追贈)되었으며, 묘소는 廣州 장지리(長旨里) 선영해좌(亥坐)의 들에 있다.

전배(前配)는 여흥민씨(驪興閔氏)로 判官 희열(希說)의 따님이다. 경인(庚寅)년 9월6일에 태어나셔서, 계해(癸亥)년 3월18일 돌아가셨다. 후배(後配)는 한양조씨(漢陽趙氏)로 직장(直長) 은(崐)의 따님이며, 계묘(癸卯)년 12월16일에 태어나셔서 만력(萬曆) 임오년 8월 21일에 돌아가셨다. 아들인 종도(宗道)는 참의(參議)를 지냈고, 종침(宗忱)은 통정대부(通政大夫)의 품계(品階)를 받았으며, 부사(府使)를 역임했다. 종민(宗敏)은 군수

를 지냈고, 종직(宗直)은 참의(參議)를 지냈으며, 이밖에 종주(宗周)와 종의(宗毅)가 있다. 이들은 모두 전배(前配)가 낳은 아들이다. 그리고 현감을 지낸 종준(宗準)이 있는데, 후배(後配)의 소생이다.

종도(宗道)는 군수 협(俠)을 낳았고, 종침(宗忱)은 설(榑)과 석(奭)을 낳았는데 모두 감역(監役)이다. 종민(宗敏)은 군수 혁(奭)과 상의원 정(尙衣院 正) 집(僉)을 낳았고, 참의(參議) 홍서익(洪瑞翼)과 별좌(別坐) 우지신(禹祗身), 직강(直講) 정원석(鄭元奭)을 사위로 맞았다. 종직(宗直)은 길(佶)과 항(尙), 휴(休)를 낳았고, 목사(牧使) 이수강(李守綱)을 사위로 맞았으며, 종주(宗周)는 우(右)를 낳았고, 허중(許僞)에게 딸을 시집보냈다. 종의(宗毅)는 사의(司議) 건(健)을 낳았고, 사위는 도사(都事) 이구준(李考俊)이다. 그리고 종준(宗準)은 봉사(奉事) 면(旻)을 낳았다.

아! 小孫은 공의 죽음에 대해 커다란 비감(悲感)이 있고, 또한 느껴운 바가 있는 사람이다.

공의 부친과 조부이신 둔암공(鈍菴公)과 망세정(忘世亭)께서는 이미 저렇게 우뚝한 명성이 있거니와, 그 손자와 증손도 율곡(栗谷) 이이(李珣)와 우계(牛溪) 성혼(成渾)의 문인이다.

그리고 만사(晩沙) 심지원(沈之源)과 죽오(竹塢) 심익현(沈益顯) 또한 저렇게 혁혁한 명망을 자랑하였다.

공의 재덕(才德)과 중망(重望)은 비록 단명(短命)에 막혀 세상에 베풀어지지 못했지만, 선조를 계승하여 후손을 계도한 어진 마음은 실로 웅대(雄大)한 것이다. 그런데 유독 공개서 발휘(發揮)하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어째서일까? 人事가 멀리 전해지는 것을 소홀히 여겨 결국 사라지게 된 것인가? 아니면 있었으나 전해진 것을 일실(逸失)한 것인가? 이에 감히 이상과 같이 서술하고 명(銘)을 잇는다.

명(銘)은 다음과 같다.

빛나누나! 우리 선조(先祖)여! 이 분께서 명문(名門)을 이으셨지

덕행(德行)이 풍성(豐盛)하셨기에 그 후손을 창성(昌盛)히 하셨네

물은 괴었다 흘러가고 겨울은 움츠러다퍼지는 법

노송나무 심어진 곳은 오히려 사람을 비취주며

참람하지 않는 자는 순조로울 것이라 점을 치듯 기약(期約)하네

소손(小孫)은 감히 자랑하며 미래를 징험(徵驗)하려 글을 적네

<끝>

7세손(七世孫) 정진(定鎭) 짓다

十七世祖 吏曹判書 清獻公 諱 宅賢 諡 狀 ⑥



▶ 청헌공 묘소



공주시 의당면 울정리 ▶ 표석

밤 사경(四更세벽2시부터 4시사이)에 비로소 파하였고, 이튿날 병조판서 겸 사용제조(司饗提調)에 임명되니 공이 말하기를 지금 해야할 일은 다만 의리를 지키고 한결같이 아뢰어 두 공(公)의 억울함을 신원하고 임금에게 무고한 것을 통쾌하게 분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것이 좀 퍼졌으나 생각을 돌리는 보람은 없이 한갓 봉록(俸祿)을 많이 받는 것을 미끼로 연줄을 타서 출세하려고 앞 뒤를 살피지 않고 무턱대고 전진(前進)하는 것을 나는 참아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였고 처음부터 끝까지 20여 일을 날마다 다시 불렀으나 끝내 그만두자 도리어 중조 판서에 임명되었고 또 즉시 글을 올려 그만두고 돌아갈 것을 고하니 임금이 하인을 보내어 감귤(柑橘)을 주고 공은 중신(重臣)으로써 고향에 있으며 하시품을 받았으니 특별한 대우였다 다시 예조판서에 임명하고 특별히 급히 교지를 내려 분수를 지켜 의를 행하라고 책망하니 경술년(1730년) 봄에 이르러 공이 드디어 성(城)에 들어가 사은숙배(謝恩肅拜)하고 임금을 모시고 영릉(寧陵:효종(孝宗)의 능)에 갔다 돌아와서 또 여전히 물러날 것을 고 하였다. 마침내 무당이 사람을 미혹(迷惑)시키는 변이 있어 부름을 받고 들어가서 다시 전에 말한 것 같이 신원하는 것과 의리를 쾌히 펴는 것을 요청하고 여러 신하의 출세의 길을 열게 하고 고향집으로 돌아왔다.

5월에 어머니의 병환이 매우 위독하자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환자를 가마에 태우고 서울 집에 돌아와 해직소(解職疎)를 내고 그만 둘 것을 빌며 구호(救護)하는데 전념(專念)하려하니 임금이 경(卿)이 어머니를 모시고 올라 온 것을내가 매우 기뻐한다 하였다.

공이 비록 정리(情理)에 다급하여 서울에 들어와서 살지 않을 수 없었으나 벼슬하여 공양한다는 것은 본래의 뜻이 아니므로 벼슬을 내리는 것은 한결같이 사양하였다.

선의대비(宣懿大妃:경종의 계비)의 상(喪)에 빈전도 감당상(殯殿都監堂上)에 차임(差任)되었으나 병으로 체임(遞任)되었고, 판돈녕(判敦寧)에 임명되었으며 또 경리청(經理廳) 제조(提調)를 겸하였다.

11월에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고 계축년(1733년)에 복을 벗고 공이 쇠퇴(衰退)하여 아위고 수중함이 특별히 심한 것을 스스로 알았고 또 세상의 중편이 점점 변해지 는 것을 보고 더욱 벼슬에 뜻이 없었으나 임금이 뜻은 오히려 사랑하여 돌보아줌이 쇠하지 아니하여 내국제조(內局提調)에 임명하고 특별히 경연(經筵)에 나오게 하여 말씀하기를 경(卿)을 보지 못한지 오래로다 어찌 그렇게 쇠하고 늙었는가 하니 공이 말하기를 오늘 궁궐에 들어와 임금의 얼굴을 우러러 뵈에 갑자기 전과 다르니

주자(朱子)가 말한바 신하의 정성이 쇠하면 임금의 얼굴도 또한 옛날과 같지 않다는 말이 바로 지금을 두고 한 말이니 더욱 몸을 보양(保養)하는데 힘쓰소서 하고 또 이조참의 권적(權嫡)의 임면(任免)함이 지나치다는 것을 아뢰었다.

오래지 않아 이조판서 겸 전생제조(典牲提調)에 임명하니 공이 말하기를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어려우면 한직(閑職)에 있어야 하는데 분수를 모르고 벼슬을 탐내어 요직에 있으면서 실권을 움켜쥐어야 옳겠습니까 하고 네 닷가지 상소문을 올리고 부름에 응하지 않은지 30여 일이 되었다.

임금이 여러 번 분수에 맞게 사리(事理)와 체면을 지키라고 엄중히 책망하며 심지어 세 번이나 패초(牌抄) 왕명으로 승지가 신하를 부름하니 공이 마지못해 나가서 사은숙배하고 정한대로의 틀에 의하지 않고 오직 청탁(淸濁)을 엄중히 분별하자 당인(黨人)으로서 공의(公議)에 득죄(得罪)한 자들이 모두 막았다. 이 때 종급(宗級)의 셋째중 이부공(吏部公)이 마침 뒷자리에 있으면서 독정(獨政)이조판서가 사고가 있을 때 참판이나 참의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대신하여 정사(政事)를 맡아보던 일할 때 또 막는 사람이 들어있으니 대개 공과 대적(對敵)하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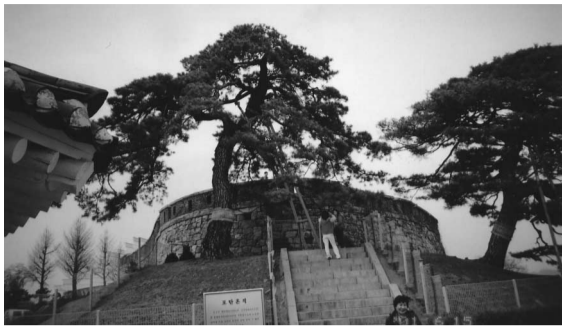
이로부터 자기와 다른 자를 좋아하지 않았고 조금 뒤에 조진세(趙鎭世)란 자가 참판 참의로서 독정(獨政)에 천망(薦望)된 일을 상소하여 논란하며 먼저 임금의 뜻을 시험하려하니 참의공이 이로 인하여 파직(罷職)되자 공이 자기 집에서 상의한 사실을 상소하여 같이 죄를 받을 것을 청하니 임금이 계속하여 용서한다는 비답을 여러 백마디 말로 내렸다.

연신(筵臣)에 비록 남의 비밀을 들추어내는 자가 있었으나 임금은 한결같이 나오라고 권면(勸勉)하였고 교지(教旨)를 받아 듣지 않을 수 없었으나 공은 사직하는데 더욱 힘써 서명대신(胥命大臣)이 사리와 체면에 부당하다는 것을 계속하여 아뢰는 자가 있자 명령을 내려 파직하였고 판돈녕(判敦寧)에 임명하니 이로부터 조정에서 시정(時政)을 의논하는데는 도무지 참석하여 듣지 않았다.

<다음호 계속>

地方巡禮

千年的恨이 서린 江華島



▶ 초지진 돈대



▶ 초지진 돈대 대포

江華大橋를 지나 300m쯤 가면 좌측으로 길이 하나 나오고 그 길을 따라 또 300m쯤 가노라면 역사박물관이 나온다. 역사박물관 정문을 들어서면 좌측으로는 역사 자료가 소장되어있는 박물관 본체가 자리하고 있고, 우측으로는 선정비 송덕비(善政碑 頌德碑)등 67개나 되는 각종 碑가 서있는데 이중에는 우리 先祖의 善政碑 2기가 있다. 들여다보니 「행 유수 심공 열 청덕선정비」[行留守 沈公 悅 淸德善政碑 : 청림 결백하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푼 유수 심열(正二品)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 : 설치년도 1628년]가 있고 또 한편에는 「행군수 심은택 치수선정 영세불망비」(行郡守 沈殷澤 治修善政 永世不忘碑 : 백성에게 선정을 베푼 군수 심은택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 : 설치년도 1897년)가 있다. 한참을 돌아 또 한곳에는 금표(禁標)라고 크게 새겨진 비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그 내용을 보니 이 금표는 1708년에 세워진 유수부(留守府)의 경고문으로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세워졌던 것으로 그 내용을 보니,

牧牲畜者杖一百(목생축자징일백) : 가축을 놓아기르는 자는 곤장 100대,

棄灰者杖八十(기회자징팔십) : 재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자는 곤장이 80대라고 쓰여 있어 우리의 선조들은 이미 300여년 전에도 자연보호의 治政이 엄격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우리 현조께서 강화에서 유입하신 것을 살펴보면

- 沈德符 : 高麗 江華都護府使
- 沈友正 : 宣祖 30년(1597) 江華府使
- 沈悅 : 宣祖 38년(1605) 江華留守 江華府使
- 沈友正 : 宣祖 30년(1597) 江華府使

- 沈器遠 : 仁祖 6년(1628) 江華留守에 제수
- 沈宅賢 : 肅宗 45년(1719) 江華留守
- 沈壽賢 : 景宗 1년(1721) 江華留守
- 沈星鎭 : 英祖 38년(1762) 江華留守
- 沈念祖 : 正祖 2년(1778) 강화부 반고심찰어사(江華府 反庫審察御使)였다.

비가 서있는 곳에서 동쪽으로 50m쯤 가면 갑곶돈대(甲申墩臺)가 있다.

고려 23代 高宗은 1232년 몽고 병란을 피해 강화에 들어오면서 39년 간을 도읍으로 하고 있는 동안 이곳을 江都라고 불리게 되었고 방어진지로 갑곶돈대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 돈대를 축성하였다.

이후로도 많은 외란을 겪게되는데 그 중에도 仁祖 15년(1636)에 병자호란(丙子胡亂)은 우리 민족에게 너무도 굴욕적인 침탈이 아닐 수 없다.

淸太宗 汗은 10만 大軍을 이끌고 와 강화도와 남한산성을 침공할 때 갑곶진을 사수하려는 우리방위군과 침략군과의 혈전에서 우리는 결국 패퇴하고 말았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결국 臣下國家라는 의미를 담은 11개 항목의 조약을 받고서야 물러갔다.

그후에도 갑곶돈대로 침입해 온 나라는 많다.

병인양요(丙寅洋擾)는 高宗 3년 프랑스군대가 군함 7척을 거느리고 침입한 것으로 이는 대원군이 천주교 탄압책으로 프랑스의 신부 9명과 신도 8000여명을 죽인 데 대한 응징의 명분으로 공격을 해와 아군이 몰살당하는 폐전을 하였고 이들은 강화를까지 진격하여 1개월 간의 점령지역에서 온갖 만행을 저질렀으며 병기와 양식을 탈취하고 철수하면서 많은 서적을 노략질해 갔다.

高宗 八年에는 서면호 사건이 일어난 것을 기화로 辛未양요가 일어났는데 3척의 미군함대가 들어와 초지진(草芝鎭)과 광성보(廣城堡)를 함께 공격하였다. 이 싸움이 치열해 우리 아군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었는데 얼마나 많은 포격을 가해왔는지 지금도 당시의 포격을 받은 소나무와 성벽에 탄흔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고종 12년에는 침입하려는 왜군 함대와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것이 '雲揚號사건'이다. 호시탐탐 침입의 기회를 엿보던 일본의 함정과 의 싸움에서 패전한 우리군대는 강화조약(江華條約)을 함으로써 왜국정 책에서 開國을 하게 됐고 이것이 훗날 일본에 식민지가 되는 첫 단초가 된 것이다. 그렇듯 항시 외세의 침범을 막으며 강토를 지키느라 해가 뜨고 날이 저물었으며 江華島는 主島 강화와 33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전체면적이 411.2평방m밖에 안 되는 작은 섬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진과 보, 포대, 돈대(鎭, 堡, 砲臺, 墩臺)를 합하여 73基 봉수대, 요망대(烽燧臺, 遙望臺)가 12소가 되는 것만으로도 장구한 세월동안 얼마나 많은 침범과 약탈을 당하였는지 모골이 송연(毛骨悚然)할 따름이다.

이날 갑곶돈대를 나와 광성보(廣城堡)로 하여 초지진(草芝鎭)까지 돌아보았다. 그렇게 치열했던 혈전의 흔적은 간곳없이 조용하기만 한데 파랑계 자란 잔디 위에 진흙과 모조품으로 장식한 포대만이 2·3분씩 관광용으로 전시되어 있었다.

다음날 일찍이 나와 창후리 나룻배로 교동 월선포에 들어섰다. 喬桐은 강화도 33개 섬중 두 번째로 큰 섬(47.29평방km²)이다. 그리고 최전방으로 그 西北쪽은 休戰線 北方 한계선이다. 섬으로 오르자마자 4km쯤 달려 면소재지인 대룡리로 들어갔다. 이곳에는 화개산(華蓋山)이 있고 그 화개산 골짜기에는 연산군(燕山君)이 유배되었던 시절 살았다는 집터가 있다고 하여 찾아왔다. 그 지역을 잘 안다는 사람의 안내를 받아 산골짜기로 올라갔으나 말로만 집터라고 전해지고 있을 뿐, 아무런 자취도 없이 그 자리에는 가축을 기르는 낡고 텅빈 축사 3채만이 남아있었다.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곳 교동으로 유배된 분만 보더라도 고려 21代 熙宗王을 시작으로 단종(端宗)이 양위하고 난 뒤 卍祖는 아우 安平大君과 그의 아들들을 유배한 후 살해하고 또 燕山君이 유배되었으며, 광해군은 임해군 영창대군 능창대군(光海君, 臨海君, 永昌大君, 綾昌大君)을 유배 한 후 살해하였다. 그 후 光海君도 강화로 유배되었으며 그 외에도 강화로 유배된 분은 많다.

연산군은 成宗의 이들로 10代王으로 즉위하자 어머니 폐비 윤씨의 죽음에 관련된 자를 찾아 다치는 대로 살육하였고 이로 인해 우리 沈門에서도 6世祖 恭肅公과 8世祖 舍人公이 참화를 입으셨다.

연산군은 계속하여 무오사화갑자사화(戊午士禍, 甲子士禍)를 일으켜 수많은 선비들을 참살하고 伯父 月山大君의 후실을 범하는 등 많은 惡政을 일삼아 결국엔 中宗反正을 당하여 강화 교동으로 유배되게 되었다. 이때 심순경공(沈順經公)이 연산군과 內人 4명 內侍 2명 使 1명을 함께 영솔하였는데 연산군은 '沈公이 나 때문에 수고가 많았으니 고맙다.'고 하였다. 연산군은 그 해 12월에 31세의 나이로 病死하였다. 이렇듯 교동은 많은 왕과 大君들이 유배되었던 곳이고 특히 광해군은 兄 臨海君과 아우 永昌大君을 유배시켜 죽였던 곳으로 훗날 光海君 자신도 그곳으로 유배되는 신세가 되었으니 참으로 세상사는 비정하고 기구한 것이다.

교동을 나와 읍내를 돌아보았다. 가는 곳마다 遺蹟地요 遺蹟들이다. 기록을 보니 강화에만 보물이 8이요 사적, 문화재(事蹟, 文化財)등이 총 122점이나 되고 이 가운데 고려문화의 정수(高麗文化精粹)라 일컫는 고려금속활자(高麗金屬活字)의 주조(鑄造)와 특히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은 81,137板이나 되는 거대한 板刻物로 지금은 국보 제 32호로 지정되어 있다.

나는 사적답사를 마치고 歸京길에 올랐다. 돌아오는 차안에서 2일간에 바빠 돌아보았던 그 현상들을 머리 속에 떠올렸다. 항상 외세의 침공을 당해가면서도 지금까지 지켜온 千年古都 강화는 또 다른 자그마한 하나의 나라처럼 보였다. 고려 2代王 惠宗(945년)이 유배를 살았던 곳이고 고려 23代 高宗은 몽고의 난을 피해 39년이나 都邑을 삼았고 丁卯胡亂 때 仁祖가 100일간을 몽진한 곳으로 그러나 강화도는 千年的恨을 담은 채 오늘도 활기찬 모습으로 번영하고 있었다.

2006년 5월 20일

- 3 -

대동세보(경진보) 신청안내



2002년도에 발간·배포한 대동세보(족보)를 아직까지 모시지 못한 집안에서는 금번 추석명절에 온가족이 모이면 의논해 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동세보 : 전 12권(수권, 자손록 10권, 색인부)와 CD롬(대동세보 전 내용과 시조 ~ 4세조 산소 동영상을 수록하였으며 모든 한자에 음 표기함)

○보급가격 : 22만원(CD롬 포함)

CD롬 별도 구입시 : 20,000원

수권 별도 구입시 : 40,000원

○송금구좌 : 농협 084-01-179314 심명구

※ 대금을 송금하신 후 대총회(02-2267-7857, 팩스 : 02-2269-7755)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즉시 택배로 보증드립니다.

※ 대동세보 편집자료 제출시 족보에약금을 납부하고 아직 잔금을 중지 않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청송심씨대총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단이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논단

◇현대 가정예절과 미래사회의 기대◇

2003년 3월 40호에서 계속

5. [격몽요결(擊蒙要訣)]을 통해 보는 실천예절



대종회 이사
沈星求

<격몽요결>은 율곡이 해주에 있을 때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만든 저작이다. 율곡(李珣: 1536~1584)은 선조에게 율곡이 간곡한 설명을 한 후 선조가 윤허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1570년경 율곡은 이 저작 실천을 기반으로 한 예절과 인성의 윤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려

고 하였다.

이 책은 조선시대에 누구나 읽어야 될 필독서였다. 따라서 조선 선비들의 행동과 인식 속에 진하게 배어있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나타난 실천 예절로서의 윤리를 살펴보도록 한다.

1) 立志

배우는 자는 뜻을 세워서 성인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강살: 입지의 목표가 출세를 함도 아니요 명예를 얻고자 함도 아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야 할 길(道)을 가는데 있다. 도가 높고 먼 것이 아닌데 사람이 스스로 행하지 않고 있으니 만가지 خوبی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달리 다른데서 도를 구할 필요가 없다. 도는 바로 우리 삶 속의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문을 하는 사람은 天地를 위하여 마음을 세우고 민생을 위하여 지극함을 세우며, 옛 聖人을 위해서 끊어진 학문을 계승하고 萬世에 태평을 열어주기 위하여 목표를 세워야 한다.

물러나서는 스스로 목표하는 바에 금을 그어두고 고식적(姑息的)으로 자신을 용서하는 버릇은 털끝만큼이라도 가슴속에 생겨나지 못하게 할 것이며, 醜(毀譽), 영욕(榮辱), 이해(利害), 화복(禍福)에 이르러서는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분발하고 힘써서 반드시 성인이 된

후야 그칠 것이라는 비장의 각오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2) 검신(檢身)

배우는 자는 이미 성인이 되겠다는 뜻을 세운이상, 반드시 구습을 씻어 버리고 한 가지 생각으로 학문을 지향하여 몸가짐과 행동을 거두어 묶어야 한다.

강살: 하루라도 자신의 몸을 단속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안된다. 평소 거(居)함에는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며, 의관은 반드시 정숙하게 하고 용모는 장중하게 하며, 보고 들음엔 반드시 단정하게 한다.

거처는 반드시 공경하게 하며, 건거나 서거나 할 때 바르게 하고 음식은 반드시 절제 있게 먹으며, 글씨는 경건하게 쓰고 책상은 반드시 가지런하게 하며, 서재(堂室)는 반드시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늘 구용(九容)으로 몸을 가져야 하니 구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논어] 季氏 10장에서 구용의 말이 나오는데 생략하기로 한다. 격몽요결에서의 구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족용중(足容重) 강살: 경솔하게 건지 않는다. 만약 어른앞에 나갈 때에는 여기에 얽매이지 않도록 한다.
- (2) 수용공(手容恭) 강살: 손은 게으르고 헤이하게 두지 않는다. 만일 일이 없으면 단정하게 거두고 망동하지 않는다.
- (3) 목용단(目容端) 강살: 눈동자를 안정되게 한다. 눈을 바르게 하고 흘러보거나 사특하게 보아서는 안된다.
- (4) 구용지(口容止) 강살: 말할 때와 음식을 먹을 때 외에는 입을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다.
- (5) 성용정(聲容靜) 강살: 목소리는 늘 바른 발음으로 하고 쓸데없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어서는 안된다.
- (6) 두용직(頭容直) 강살: 머리는 바르게 하여 몸이 반듯하게 되게 하며 기울거나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한다.
- (7) 기용숙(氣容肅) 강살: 호흡은 늘 고르게 하고 콧소리를 내지 않는다.
- (8) 입용덕(立容德) 강살: 바르게 서며 기대지 않고 의연하게 덕이 있는 기상이 있어야 한다.
- (9) 색용장(色容莊) 강살: 안색에 태만한 기색이 없도록 한다.

沈영감 심민섭



理總財監副會顧
事務務事長長問

豪變	載南	在成	德求	左輔	相泉	佑變	康變	升求	榮變
健變	宗秀	事變	英變	旭煥	興輔	昌求	晶求	載甲	棋赫
俊變	載煥	相鶴	駿求	然澤	萬根	道鎮	應茂	昌變	相振
奎變	在春	權變	慶變	欽變	應茂	昌變	相振	健變	明求
樺變	在允	範求	慶變	光植	晚植	載重	載根	載日	賢輔
英變	愚讚	元輔	載重	載根	載日	賢輔	東錫	載範	江景
의장	元輔	晚植	載重	載根	載日	賢輔	東錫	載範	江景
관길	應烈	載讚	載根	載日	賢輔	東錫	載範	江景	
현보	玉珍	載茂	載日	賢輔	東錫	載範	江景		
相均	麟澤	載珍	賢輔	東錫	載範	江景			
중식	相喆	載範	江景						
완구	鍾文	載景							

靑松沈氏 仁川宗會 任員名單

理總監副常會顧
任副會長長問

載鎬	永壽	載福	文變	永穆	洪變	仁變	天澤	相祐	載煥
鎮植	龍欽	載鉉	(진복을)	尤變	相浩	忠植	揆鎮	清澤	相穆
昶雨	愚錫	載星	(진복을)	晞變	完變	元變	文變	(홍평을)	重變
愚大	昌用	揆鎬	載卿	昶欽	章欽	大欽	愚敦	應銀	銀變
	滿用	載星	(홍평을)	章欽	大欽	愚敦	應銀	銀變	
	相梅	載元	愚敦	應銀	銀變				
	爽順	載元	愚敦	應銀	銀變				
	仁淑	載善	永泰						
	載박								

靑松沈氏 春川宗會 任員名單

송금안내

찬조금 또는 종보 회비를 송금하실 분은 아래 구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은행 033-031098-04-046
대종회 심명구
- 농협 084-12-055823
(을지로 4가지점) 대종회 심명구

본 성금이나 회비는 전액 종보발간에 사용하고 있으며 별도회계로 독립 재산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靑松심씨 대종회
전화: (02)2267-7857

靑松시조묘소연락처

유사 상국 011-554-1313
원택 011-9355-3608

宗 事 消 息

하계수련대회 실시방법 변경안내

1. 청송에서 매년 실시해온 하계수련대회 중단

금년에도 제23회 하계수련대회를 청송 경의재에서 실시(7월 27일 - 28일)하였으나 참석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내년부터는 청송에서의 하계수련대회를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 매년 각 종회별로 인원동원 노력을 기울였으나 청송지역이 워낙 교통이 불편하여 원거리 거주자는 참석하기가 어려우며, 학생들은 방학중에도 학업이 우선이라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금년에도 참석인원이 적어 2박3일 연수일정을 하루 단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 전국 대도시 순회교육 실시

여름과 겨울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전국 대도시를 순회하며 각 지역종회의 협조를 받아 하루 일정으로 연수를 실시하면 전국 종인들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고 교육에 참여하기도 용이할 것이며, 따라서 교육의 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시청각 교재를 다양하게 준비하겠으며 시조산소를 비롯하여 4세조까지의 산소를 동영상으로 소개하고, 연수교재는 뿌리교육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새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 금년 겨울방학부터는 전국 광역시와 도청소재지를 연차적으로 순회하면서 수련회를 실시하되 연수일정은 각 지역종회와 협의하여 조정하겠습니다.
- 각 지역종회에서는 「수련회 장소 선정」, 「지역 유명인사 강사(특강) 초빙」, 「관내종인과 청소년들 참여 독려」등의 조치를 취해 주시면 됩니다.



▶ 23회 수련 강의 장면



▶ 기념 촬영



▶ 수련생 시조묘소 성묘

氣候變化에 관한 小考

近來 우리나라의 氣象變化에 對하여 先人들로부터 들은 몇 가지 상식들을 이해하기 쉽게 要點만 論述 해 보고자 한다. 地球는 쉬지 않고 自轉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節侯上 春, 夏, 秋, 冬의 계절이 뚜렷하다. 매년 여름철이 되면 장마와 태풍이 어김없이 찾아와 韓半島를 強打 天災地變을 일으키고 人命까지 앓아가는가 하면, 겨울철에는 前보다 심한 寒波와 大雪로 교통이 마비되고 凍死者까지 發生하는 등 이와 같이 氣象異變이 심해진 것이 현실이다.

이를 요약해 보면 남아프리카 서해안을 따라 흐르는 차가운 페루 海流속에 갑자기 異常暖流가 침입하는 海流의 異變現象인 '엘니뇨'(El Nino : 에스파냐어로 '어린애'라는 뜻)와 한편 赤道 무역풍이 강해지면서 西太平洋의 海水溫度上昇으로 東太平洋에서 低水溫現象이 일어나는 海流의 이변현상인 '라니냐'(Laninia : 에스파니아어로 '여자아이'라는 뜻)의 相對性原理를 事實 그대로 反映시키지 않았나 긍정적으로 思慮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난 2005년 歲暮의 寒波와 大雪, 또는 暴雪이 내린 것과, 2006년 7월 10일에 上陸한 제3호 태풍 '에위니아'가 몰고 온 集中豪雨로 全國土를 強打, 一死地域을 焦土化시킨 장대 暴雨, 물 폭탄이 相對性原理를 死實히 立證시킨 것이라고 認定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益山 沈相泳

益山宗會 理事會 開催

益山宗會에서는 지난 7월 19일 午前 11時 30분에 미륵사지 주변 「미륵탑 산장」에서 2006年度 3/4分期 理事會를 개최하였다. 益山은 都農 複合都市로서 시기적으로 보아 分期모임이 빠른 감이 있으나 都市任員님들은 年中 全天候인데 비해 農村任員님들은 바쁜 고비는 1, 2차 넘기고 때가 마침 장마철인지라 일손을 잠시 멈추게 되어 이 시기를 택하게 된 것이다. 細雨가 내리는 가운데 우리 이사님들은 崇祖敦睦의 이념아래 몇 분의 有故임원을 제외하고는 全員이 참여하여 자리가 돈독하였다. 定例理事會가 시작되자 ①當宗會 現況 및 경과보고 ②二世祖 山所 주변현황 ③2006年度 夏季修鍊大會의 홍보 ④安孝公宗會 2006年度 端午節祀奉行 및 定期總會 경과보고 ⑤先進宗會로 指向하는 理事님들의 건설적인 발언 ⑥기타 社會全般에 걸친 격의없는 의사 교환 등, 진지하게 회의가 진행되었다. 위와 같이 정례회를 마치고 장소를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으로 옮겼다. 入館하여 안내서를 보니 當展示館은 1997年 開館 이래 미륵사지에서 出土된 유물을 전시 보존하고 문화의 보고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소장되어 있는 유물은 19,200여 점에 이르고 있고 機能 종류별로 전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社會教育의 場으로서 전시관 역할을 다하고자 ①道內 初·中學生을 대상으로 여름 文化學校 ②教師를 대상으로 歷史文化講座 ③일반인을 대상으로 土曜 傳統文化講座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④또한 特別企劃展, 各種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地域民이 문화적 즐거움을 누리는 文化空間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산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람을 마치고 전시관을 나오니 細雨는 아직도 계속 내리고 있었고 때는 2시 반을 가르키고 있었다. 다음 4/4 분기까지는 5개월 반을 기다려야 한다. 우리는 추석 후로 擇日하여 臨時會를 열어 다시 만나기로 하고 상호 건강을 당부하면서 작별의 아쉬움 속에 解散 하였다.

益山宗會 總務 佶燮

알 림

派(地域) 宗會旗 製作 申請

今年부터 우리門中の 家章을 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 派宗會 또는 地域宗會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회기를 교체하여야 하는바, 대종회에서 일괄 제작하여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어 소요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 기존의 종회기를 교체하거나
- ▶ 宗會旗를 새로 제작하고자 하는 派(地域)宗會에서는 8월 15일까지 다음과 같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靑松沈氏大宗會(02-2267-7857)

宗 會 名	靑松沈氏	宗 會
住 所		
電 話 番 號	宅: - - -	휴대폰: - - -
신 청 내 용	종회기(깃대 포함) : 180,000원 종회기(깃대 제외) : 150,000원	

광 짝

■심갑보(三益 THK 株) 부회장의 현장경영학■

개별고객 만족시대다



부회장 심갑보

필자는 얼마 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한남동 남산 자락에 위치한 삼성미술관 리움(Leeum)을 관람한 바 있다. 한국 전통미술을 전시하는 고미술관(제1미술관)과 현대미술 상설공간인 제2미술관, 그리고 제3미술관인 삼성 아동문화센터 등은 세계적인 건축가 3명이 설계한 것으로 서로 다른 개성이 어우러져 새로운 미감을 창출해 내고 있었다. 그러나 필자의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삼성미술관의 외형이나 그곳에 전시된 국보급 미술품보다, 관람객이 목에 걸고 개별 작품앞에 서면 친절하게 작품에 대한 설명과 전시품의 이력, 참고문있·작가소개 등을 설명해 주는 “똑보기”라는 디지털가이드(PDA)였다.

루브르박물관 등의 외국 유명 박물관을 관람할 때 관람객이 귀에 이어폰을 끼고 앞에서 설명하는 가이드의 해설을 듣는 것과는 엄청난 진보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똑보기”는 Leeum 상설전에 전시되어 있는 소장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첨단 디지털가이드로써 개개인 관람객들이 효율적으로 전시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정보검색 서비스와 연계하여 소장품에 대한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몇 개국 외국어로의 전환이 가능함은 물론이었다. 삼성미술관 Leeum을 관람해보고 이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고객만족이 아니라 개별고객 만족경영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몇 년 전 필자가 맞춤형 ‘고객만족경영’이란 칼럼에서 장거리를 운행하는 항공기의 비즈니스석과 1등석 의자에 액정 TV와 오디오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10여개의 각종 영화나 본인이 듣고 싶어하는 오디오를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국내외 대형 항공사들이 장거리 운항 항공기의 경우 이코노미 클래스(3등석)에까지 이 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있다는 보도를 본 바 있어 개별고객 만족경영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느낄 수 있었다.

당사에서 실시한 개별고객 만족경영의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할까한다. 2년 전 수원에 있는 M기업에 ‘하모닉 드라이브’라는 정밀 감속기를 납품한 바 있었다. M기업의 장비설계팀과 당사의 기술진이 협의하여 M사의 LCD제품 생산 장비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당사가 취급하는 정밀감속

기 신제품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생산라인에 투입한 장비가 얼마 되지 않아 후렉스 스프라인의 치차부분이 파손되어 클레임이 발생하였다.

감속기 제작사인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사에서 품질개선과 반품처리를 요구했으나 감속기의 사용 환경이 열악한 조건이어서 적용자체에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였다.

필자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천만원이나 되는 납품분 전량을 반품 처리해주고 M사 설계팀과 당사 기술진이 협력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된 제품으로 신속하게 교환해 주었다.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생산일정을 맞추기 위해 수차례 일본으로부터 비행기로 직접 공수하여 신속히 공급함으로써 거래처의 생산 차질을 최대한 줄여주었다.

그 결과 M기업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었고 매출액도 계속 늘어가게 되었다. 당사가 납품한 제품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대응한 것이 그 뒤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있대는 사람들의 개성과 취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좌뇌(左腦)보다는 우뇌(右腦)활용에 초점에 맞추어야 기업경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앞으로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불문하고 개별고객 만족경영을 지향할 때 그기업은 남보다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끝>

심갑보 삼익THK주식회사 대표이사 부회장

기행문

타프린에서 LA·허리우드로 ㊦



대중회사 이사 심성구

휴양의 도시 타프린에서 허리우드로 가는 날이다. 주위는 풀 한 포기 없는 삭막한 모래산 기슭이다. 그래도 집들이 준비하다. 그들은 무엇으로 생활하는지, 이곳 사람들은 주로 도박으로 소일한다고 하는데, 아리조나, 네바다, 캘리포니아 3개 주의 삼각 지점이다. 영화 ‘에덴의 동쪽’의 촬영지이기도 했고, 그리고 오토바이, 스포츠카, 경기장도 이곳에 있고 구름 낮은 별관은 짙은 초록색이다. 수분이 많은 지역인가 보다. 누런 초지는 우리나라 가을의 황금별관같기도 하고 새로 모를 낸 논같이 보이는 곳도 있다. 우리는 미국을 인권의 나라라고 하지만 그것은 자국민을 위한 인권인지 타국민을 위한 인권은 절대 아니란다. 이를 데 없이 야비한 국민성이라.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듯 하다. 영국백인들이 와서 이제까지 원주민들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돌아켜 보면 공연히 미국을 평가절하는 말은 아닌 것 같다.

버스의 속도가 다소주는 것 같다.

고갯길이다. 산기슭으로는 1m 정도의 철조망이 늘어져 있다. 국가에서 설치한 것인가 했더니 동물 애호가들이 한 것이란다.

모하비 사막 중심지대를 가로질러 달리는 것이다. 멀리 보이는 사막 길에 달리는 차들이 쫓기는 어떤 동물들의 행렬 같기도 하고 경승점으로 들어서는 카레이서 같기도 하다.

사막 좌우로 살펴도 사막이다. 사막 끝으로는 산이다. 그 위로 보이는 하늘은 적갈색이다. 새하얀 산도 보인다. 까만 색의 산도 적갈색의 산도 누런 황토색의 산도 보인다. 그래서 인종도 5색 인종이 살아야 하는 땅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사막 하면 그저 끝없는 모래 벌판 기껏해야 바람 따라 현물(顯沒)하는 사구 정도로 연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처음 본다. 가로지른 색채사막(Painfeel Desert) 그 색채만도 37종에 달한다고 한다. 보는 지점에 따라, 햇빛에 따라 달리 보이기도 하겠지만 37가지 색은 손가락을 꼽으며 세어 보아도 내가 아는 색채로는 반도 헤아려지지 않는다. 어쨌든 먼데 산이고 원근의 사막이고 그렇게 보이니까 37종의 색채라고 했던 것으로 간주하고만다.

옛날 이 사막에서도 적응하면서 살았던 유목민들, 대상들, 원주민들의 생활력, 의지력, 인내력을 상상하다가, 왕오천축국전을 상기하고 헤초스님의 그 위대한 사고, 지혜·용기·체력 등을 생각하니 연일 차를 타는 피로감은 사치에 불과하다. 사막을 따라 세워진 철탑이 생각보다 영성하다. 치다만 거미줄 같다.

이 사막을 왕복 길의 중간에는 직경 5m의 수로관이 묻혀 있고 물이 언제나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수로에서부터 각자가 필요한 곳까지는 개인부담으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로 물만 뿌려주면 옥토가 되어 어떤 농작물이고 재배도 가능하더니 놀랄기도 하다. 하나 더 놀랄만 한 것은 그것보다도 후버 뱀에서 공급하는 물이라고 하여야 하겠다.

이정표에 LA 입구 표지판이 보인다. 15번 도로다. 시야가 흐려진다. 모두가 윤곽만 보이지만 차차 집들이 많아진다. 숲도, 농장도 흰색의 단층 건물들도 나무 사이로 즐비하다. 공업지대인 것도 같다. 여행객을 위한 비상전화도 어느 길에서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도 수화기만 들고 죽는 사람도 더러 있다니 인간의 능력이 자연의 조화를 능가할 수 없다는 또 하나의 교훈이 아닐까! 드디어 LA시내다. 집들은 숲속에 싸여 다 소극한 편이다. 행정 단위는 시, 카운티, 주, 국가로 구성되는데 LA는 41개와 56개의 카운티로 구성된 도시란다. 서쪽 바닷가로 갈수록 집이 좋아지고 백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두 번째, 세계 7위의 남 캘리포니아 서해안 최대의 도시로 92개의 항구가 있는 항구도시이기도 하다.

이것이 LA가 발달된 동기이기도 하고, 미국 전체를 통하여 안정된 기후 탓인지 사람들도 밝고 낙천적이라서 이곳에서 살아보면 다른 곳에서는 살 수 없다는 말들을 할 정도로 멋있는 환경이 실재하는 곳이다. 그러나 항상 지진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곳이다. LA하면 어떤 이는 할리우드를, 누구는 비벌리 언덕의 호화저택을, 또 어느 사람은 야자수 늘어선 해변을 연상할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복잡한 것도 같지만, 볼거리가 많다는 점이 될 수도 있다.

LA타운, 시청, 법원, 한진에서 운영한다는 호텔 등 고층건물이 다가선다. 코리안 타운이다. 한글 간판이 즐비하다. 79년에만 해도 식당이 9개소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서울 시내를 방불케하는 한인타운이다. 미국 속의 한국이라고 할까.

LA폭동의 현장이다. 실제로는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분풀이를 하러가다 그들에게 밧게 보인 한국인도 있었으므로 3일간의 폭동으로 비화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LA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거대한 도시다.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걸쳐 새로운 운동이 일어났다.

흑인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운동, 여성해방운동 등을 사랑을 예찬하면서 번져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부르즈아화 되었거나 영오의 몸이 되었고, 이 운동은 80년대로 계승. 현재는 ‘소비자 연맹’이라는 조직으로 물질적인 진보에 따른 인간이 존엄성, 우애를 주장하는 그들 최대의 근거지가 바로 이 LA인 것이다. 한인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할리우드로 간다.

앞에서 말한 비벌리 언덕의 호화주택지를 지난다. 보기에는 듣기보다 그리 대단치도 않은 것 같은 산 동리이다. 집들은 큼직큼직하고 모두가 숲속에 묻혔다.

6월 중순의 하늘은 맑다. 맑은 하늘은 언제 어디서 보나 싫지 않다. ‘가을 하늘 공황한데 높고 구름 없이’ 가을은 아니지만 맑은 하늘을 보면 생각하게 하는 국가가 아닌 애국가의 일절이다. 조국, 조국은 고향과 함께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음호 계속>

독립운동가 沈誠之 ⑫

또 이러한 춘추대의론은 창 의 후 3월 17일(음 2.4) 천지 신명에 대한 서효원의 '축문'과 김상길의 '창서사(昌誓詞)'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즉 서효원은 '축문'에서, 국왕의 의대소(衣帶召)가 내려진 이상, 창 의는 '우리와 오랑캐, 사람과 짐승의 분별(華夷人獸之辨)'을 위한 춘추대의라고 규정하였고, 김상길(金相吉)은 '창서사'에서 밀지를 받은 선비의 소임은 흉도를 섬멸하고 오랑캐를 구축하는 것이라 역설하여 거의의 명분을 '춘추지법(春秋之法)'에서 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청송의진이 5월 25일 국왕의 칙유에 따라 의병을 해산하는 것은 유생의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었다. 즉, '임금의 칙유 또한 이처럼 간절하고 돈독하기가 하늘의 조서를 독봉하는 것과 같다. 만약 약하고 외로운 형세로 오랫동안 읍내에 주둔할 것 같으면 앞으로 불행이 있을 것이고 화(禍)가 조만간 닥칠 것'이라 하여, 근왕주의적 의병으로서 더 이상 항전의 명분을 찾을 수 없었던 한계를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주목되는 것은 청국년호(淸國年號) 사용과 청국 청원문제에 대해 의진에 참여하고 있던 유생들의 인식 문제이다. 여기에서 참모 오세로의 경우에는 매우 진보된 대외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청국 연호를 사용치 않는 것은 어떠한 의리를 말하는 것인가. 가로되, 이것은 소위 피차 일시적인 것이다. 전일(前日) 청국 연호를 쓰지 않았던 것은 칭이 싫어서가 아니라 대명수절(大明守節)을 위함이요, 금일 청국에 투신하는 것은 칭을 숭모해서가 아니라 본국의 위급함을 고하기 위함이다. 본국의 위급함을 고하는 것은 교린(交隣)의 상도(常道)요 대명수절(大明守節)은 화이(華夷)의 큰 분별이니 역시 각기 병행함은 서로 거스르는 것이 아니다. 위의 자료는 을미의병에서 다수 나타나고 있던 청국 연호의 사용과 청국 청원문제에 대한 매우 논리적인 글이다. 이미 을미의병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칭의 연호 '광서(光緒)'의 사용과 칭의 군대를 이용하려는 청국 청원문제는 다수 거론되고 있었다. 전자의 경우, 관동(關東)의진의 민용호(閔龍鎬)와 평주의진의 정한용(鄭漢鎬)이 칭의 연호 '광서'를 사용하였고, 안동의진의 권세연(權世淵)이 칭을 '상국(上國)'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후자의 경우, 1894년 안동의병 서상철의 청나라 세력을 이용하여 일본세력을 물리치는 '조청토왜(助淸討倭)' 1896년 호좌(湖左)의진과 金山의진의 청나라에 대해 청병을 모

색하는 '청국 청원 신사단(紳士團)'의 파견 등이 나타나고 있다. 청송의진의 경우에도 화이론적 척사(斥邪) 논리를 견지하던 유생들이 칭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단계로 변화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화이론적인 종왕양이 사상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양반유생들의 대외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청송의진에 참여했던 양반유생들의 의진 해산 후의 거취문제이다. 창 의장 沈誠之의 경우, 산정에 은거하며 경사(經史)를 연구하고, 문하수십인과 더불어 향음례(鄉飲禮)를 행하며 백록동규(白鹿洞規)와 남전향약(藍田鄉約)을 강독하였다. 그는 왜병의 추적에도 불구하고 끝내 피체되지 않았으나, 가옥은 放火, 전소되었고 가족들도 많은 고초를 겪고 있다. 참모 조독호(趙篤祐)의 경우에도 '폐문자수(閉門自守)'하여 은거로 일관하였고, 중군 김대락(金大洛)의 경우에는 의진 해산 후 화목(和睦)참봉을 거쳐 金海府使에 임명되었으나 부임치 않았다고 한다. 의병을 해산한 뒤 양반 유생들은 대부분 은거하고 있으나, 일제하의 시대적 상황에서 의병 참가 사실조차 문자로 남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

7. 결론

'적원일기'는 1896년 을미 의병기 청송의진의 차의 경위, 의병진의 진용, 전투 상황을 비롯하여 주변 군에서 조직된 의병진의 격문왕래와 상호간의 연계 등을 기록한 것으로 매우 귀중한 사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었던 청송의진의 실증적인 고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청송의진은 1896년 3월 2일 창 의하였다. 청송지방의 양반 유생 들은 주변 군의 창 의에 자극 받고, "나라와 고을을 수호하자"는 기치 하에 향교를 중심으로 향회를 소집하여 의병진을 결성하였다. 청송의진은 창 의 후 진용을 정비하고, 의병의 모집과 훈련, 그리고 군량미와 군수품의 수집을 추진해 갔다. 뿐만 아니라 주변 군에서 결성된 여러 의병진과 연계하여 정보를 주고받았고, 나아가 연합의진을 결성하여 전투의병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청송의진은 창 의장을 중심으로 편성된 上營과 그 아래 各營으로 편제되어 있다. 상영은 대장을 중심으로 부장, 그 아래 중군과 좌·우익장을 중심으로 편제되며, 각영은 司兵都總과 소모장(召募將)으로 편제되어 대규모의 조직화된 의병진으로 진용이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각면의 외방장(外防將)은 面任과 집강(執綱)의 협조하에 지역의 장정으로 이루어진 面軍으로 대오를 편성하여 面軍체제를 이루고 있다. 일원의 문인으로서

사승(師承)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병사부는 용병적 성격을 가진 포군 들이 전투 요원으로 주력을 형성하였고, 농민 등은 전투의병으로서의 기능은 미약했지만, 의병진의 주력부대로서 전투요원과 비 전투요원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병사부는 180여명의 포군과 농민, 그리고 면군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면군은 군사적으로 외방장의 지휘 하에 있는 외곽부대로서 각면 지역의 방어와 행정으로 치안을 담당하여 본진을 후원하였다.

청송의진은 무기에 결정적인 취약성이 있었으나 꾸준하게 진법과 사격 연습을 통해 오합지졸의 의병을 정예군포로 정비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청송의진의 지도부는 문중에 대한 문배전(門排錢), 지주·부호 층에 대한 차출금(差出金), 그리고 의연금의 모집을 통해 군인들의 급료와 식비, 그리고 군수비 등 재정적 부담에 대해 조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청송의진은 주변의 의병진과 격문이나 私通을 주고 받으며, 정보의 교환, 연합의진의 결성과 출진소의 성치 등 상호 협조 체제를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흥해의진이나 영덕의진과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흥해출진소와 영덕출진소를 설치하여 포군을 파견하는 등 상호 지원하고 있었다. 또 안동의진을 중심으로 한 松川都會와 豊山회를 통해 상호협력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청송의진은 의성연합의진과 경주연합의진에 참가하여 청송 감은리, 경주성, 영덕 등지의 여러 전투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그 중 청송군 안덕면 감은리 전투는 청송의진이 수행한 가장 주목되는 전투였다. 청송의진의 창 의 이념은 관계개혁과 변복령, 을미사변, 단발령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에 직면하여 윤리와 강상을 회복하자는 근왕주의적 충군 논리에 입각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안동의진의 소모장 柳時淵의 황포에 대해 청송지역 양반유생들은 자존심을 환기하여 고을을 안정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 하였다. 따라서 청송 의진은 국가에 대한 '위국거의(爲國舉義)'와 고을에 대한 '자수지계(自守之計)'로 창 의하였다는 점에서 춘추대의론에 입각한 勤王主義의 의병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주목되는 것은 을미의병에서 일반적으로 청국 연호의 사용과 청국청원문제 등에서 화이론적 입장을 견지하던 유생들이 칭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단계로 변화하듯이 청송의진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끝>

대동세보 수권속편(외 4종) 신청안내

구 분	페이지	가 격	신청부수
1. 대동세보 수권(속편)	-약 1,200P	50,000원	()권
2. 청송심씨세고선(한시집)	-약 600P	30,000원	()권
3. 종보축쇄판(1-50회)	-약 400P	20,000원	()권
4. 제향출기(휴대용)	-약 30P	3,000원	()권
5. 종사수첩(휴대용)	-약 140P	3,000원	()권
6. 뱃 지		1,000원	()개

▶ 1, 2, 3세권을 일시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4, 5, 6 세가지 물품을 무상으로 드립니다.

❖ 수령인 주소 및 송금내역

파 명	이 름	집 전 화	
		휴 대 폰	
이 름		우 편 번 호	
송금일자	송 금 인	금 액	송 금 은 행
			()은행()지점

수권속편 질 단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 1질 단위는 발송비 없음.
- ◆ 질단위 외에는 발송비 3,000원을 대금에 합산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요령

1. 파명은 봉익공파, 악은공, 도총제공, 판사공, 지성주사공, 인수부윤공, 안효공, 동지 총제공으로 구분
2. 주소는 번지와 동·호수까지 자세하게 기재, 집전화·휴대전화 꼭 기재요함
3. 송금인이 본인인 아니면 반드시 송금인명을 기재하고, 송금수수료는 신청자가 부담
4. 송금한 은행과 지점명을 기재

❖ 공지사항

1. 수권속편 신청금은 대동세보 관리통장 [농협 084-01-179314 심명구]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2. 수권속편 대금을 입금하신 분은 반드시 대총회에 신청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3. 수권속편이 5월 10일자로 발간되어 신청즉시 발송하고 있으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보내실 곳 ❖

서울 중구 오장동 14-10(산경회관) 청송심씨대중회
 우편번호 100-310
 TEL: 02)2267-7857, 2263-7897
 FAX: 02)2269-7755

2006년 하반기 정년퇴직교원 정부 포상

정부는 2세 교육을 위해 묵묵히 사도의 길을 걸어 오면서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2006년 8월말로 정년퇴임하는 2,227명의 각급 학교 교원에 대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노고를 치하하여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바 그 중 일가분들의 명단을 알려드립니다.

◇ 황조근정훈장

- 심경숙(沈慶淑) 교사 서울한산초등학교
- 심규석(沈揆碩) 교장 개원초등학교
- 심찬구(沈潑求) 교사 인천용현초등학교
- 심선택(沈善澤) 교장 인천용현초등학교
- 심재선(沈載瑄) 교장 괴산북중학교
- 심재승(沈載承) 교장 안동서부초등학교
- 심국자(沈國子) 교사 석전초등학교

◇ 홍조근정훈장

- 심문식(沈文植) 교사 남도여자중학교
- 심재웅(沈載雄) 교장 삼산초등학교

◇ 녹조근정훈장

- 심무일(沈茂一) 교사 협성중학교
- 심지섭(沈智燮) 교사 전남중학교
- 심원근(沈元根) 교장 천안신방중학교

◇ 옥조근정훈장

- 심재일(沈載一) 교사 성수공업고등학교

◇ 근정포장

- 심정택(沈正澤) 교사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 장관표창

- 심화자(沈花子) 교수 단국대학교



- 심명주 : 한국산업단지공단 기획혁신팀장
- 심재복 : 서강대 신학대학원팀장
- 심우창 : 한국보건진흥원 HACCP·GMP팀장
- 심우섭 : 서울신문 미디어지원팀장
- 심상대 : 국무총리비서실 정무2 비서관
- 심동섭 : 문화관광부 문화미디어국 방송광고팀장
- 沈載義 : 수협중앙회 구로디지털단지 지점장
- 沈載東 : 노동부 부산북부 지청장
- 심규택 :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총무과장
- 심정연 :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 沈燦燮 : 대한광공업진흥공사 유통사업팀장
- 심원택 : MBC 스포츠취재팀
- 심덕보 : 한국은행 경남본부
- 沈道錫 : 한국과학기술원 정보통신팀장
- 沈俊輔 : 대법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
- 沈鉉燮 : 경남교육청 마산교육청 교육장
- 심대섭 : 서울시교육청 방이초등학교 교장
- 沈相洛 : 한국폴리텍Ⅲ대학 강릉캠퍼스 지역대학장
- 沈在亨 : 한국폴리텍Ⅵ대학 김천캠퍼스 지역대학장



祝
심 현 준
공학박사 학위 취득

현준(심종영씨의 차남 23세)군의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 학위 취득을 축하합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세계제일의 반도체 메모리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해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고 문중의 명예를 드높여 주기를 바라며, 현준군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青松沈氏固城郡宗親會員一同

12世祖 左承旨公(諱·淑)宗會消息

- 五世祖 안효공(安孝公 諱:溫) 후손인
- 10세조 양지공(陽智公 諱:業) 兩位
- 11세조 감찰공(監察公 諱:大有) 兩位

당초에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안장봉안(安葬奉安)하였는데, 금반 산소주변이 도시개발지역으로 편입되어, 不得已 12세조 左承旨 공중회에서 선산인 전북 군산시 임피면 취산리 山116번지 2006년 9월 3일 천장봉행(遷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群山市 左承旨公宗會 會長 一重 提供



▶ 감모제 진주시 이반성면 정수리

青松沈氏 感慕齋重建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정수리에 위치한 청송심씨 감모제(재임 沈在圭)에서 지난 4월 2일 중건 낙성식

이 있었다.

한선우(韓善愚) 진주향교 전교, 이병찬(李秉讚) 진주문화원장, 정규섭(鄭奎燮) 성균관 부관장, 김행포(金幸布) 향교사무국장 등 地方儒林 250여명이 참석한 이날 낙성식에는 감사패증정과 경과보고(회장 沈柱燮) 재임인사 등으로 진행하였다.

이곳의 青松沈氏는 세종대왕의 국구(國舅)인 領議政 안효공 휘 심온(安孝公 諱:沈溫)의 후예들로서 충청도 아산에 살았는데 후손인 휘 심서현(諱:沈瑞憲)공의 부인 尹氏가 임진왜란을 만나 어린아들을 데리고 피난을 와서 정착하게 된 것이 어언 300여 년이 넘었다.

차츰 忠孝정신이 쇠퇴해져가는 이 시기에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모금운동을 하여 孝를 실천하고 있는 정수종중에 모두들 갈채를 보냈다.

2006년 9월 5일 진주정수종회 提供

성금감사합니다

- 宗報誠金 -

진섭	50,000	수원	
효섭	50,000	수원 호매실동	
영섭	50,000	여주(신진자동차학원)	
의순	100,000	대구 대명동	
귀동	30,000	완주 구이면	
문섭	30,000	서울 신월동	
상운	30,000	삼중 교동	
기천	20,000	분당 서현동	
재웅	30,000	대전 도마동	
원섭	30,000	의왕 오전동	
주식	50,000	화성 향남면	
상만	30,000	완주 구이면	
희보	30,000	시흥	
재영	30,000	마산	
만복	30,000	단양 대강면	
재철	30,000	양주 회천면	
승규	50,000	평창 진부면	
東燮	50,000	춘천 석사동	
天澤	50,000	춘천 퇴계동	
春川宗會	200,000		
相祐	100,000	춘천중회 회장	

誤字訂正

- 59호 춘천신천공중회 100,000원 ▶ 춘천중회
- 60호 동대문구재옥 30,000원 ▶ 신당동 (남산타운A)

理事會費

東燮	50,000	2006	춘천 석사동
相祐	50,000	2006	(新)춘천 후평동
湖澤	50,000	2006	대구 대명동

소주는 25도 카하면 20도



시인 심황섭

숫자도 못 쓰는 주제에
오광펠 댄 척척
담배 물고 술 마시며

소주가 25도라고
마실 때 카- 하면
5도 새어 나가
실제는 20도만 마신다고...

근본은 확실하나
백수되어
높은 산에 앉아
멀리 볼려고
소주병 들고 25도 마시려고
부엉이 찾아가느냐

코스모스가 핀 언덕

그 동안 세월이
코스모스만큼
시간은 흘렀다
봄에 뼈꾸기 소리에
씩이 트고
여름 땀뭉기 울음에
커서 가을을 맞아
가날프지만 나름대로

계절을 찾아피었다
수줍은 너의 모습이
저 노을 언덕에 서서
차가운 바람에 흔들려
꽃길을 이루고
기다림이면 그대로 좋고
바람 부는 날이면 그대로 좋다
태어남이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서